

환경관련 신문사설 비교 -6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유영한 · 배영부 · 김용근

(서울교육대학교)

Comparative Analysis on Newspaper Editorial Related with Environment

-Focusing on the 6-Daily Newspapers-

Young-han Ryu · Young Boo Bae · Yongg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edia companies' editorial viewpoint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Not only do newspaper editorials provide a variety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also they make it possible for the public to form an opinion and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reporting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newspaper companies started writing more frequently about the environment from early 1980s. To show this, I analyzed environmental articles written in the six main newspaper companies: Chosun, Donga, Hangeerae, Kyunghyang, Hankook, and Munwha from 1999 to 2004. For this study, the articles have been compiled by using the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 Also the data has been sorted according to year, subject, and by the company of origin.

The total number of the environmental articles posted on these six daily newspapers from 1999 to 2004 is 729 and these represent 2.59% of the total articles. Hankook-Ilbo was the company that handled the most of environmental articles followed by Hangeerae, Munwha,

Kyunghwang, Chosun, and Donga. The major topics of discussion were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water quality issues.

The number of the environmental related articles increased in 1999 and 2000, but then decreased from 2001 to 2003. Again the number increased in 2004. Interestingly while the number of articles covering the environment increased from the 1980s and into the 1990s, the number of articles decreased from 1999 to 2004 as the post-IMF period seems to have suppressed interest in the ecological issues despite the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With the change in media coverage people have begun to recognize environmental issues as having social impact. As a result the people have begun to take such issues more seriously and take more active role in effecting environmental policy.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media presents it's stories in an object manner to insure that the public is properly informed.

Key words : editorial, KINDS, environmental issues, newspaper

I. 서론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논의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해결방안에 대한 비판적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논평은 특정한 견해를 주창하고 선전을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¹⁾. 즉 언론은 사실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또한 일부 신문의 경우 특정 대기업이 운영한 사례도 있듯 특정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로 수행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문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독자들은 신문 사설의 논조와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신문의 주장에 서서히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에리히 프롬은 그 중독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 신문 독자에게 그가 어떤 정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 그는 신문에서 읽은 다소 부정확한 기사를 마치 -그의 의견인 양 말할 것이며-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사고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²⁾

오늘날 사회는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환경적 위협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사설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좀 더 바람직하고 발전된 환경사설의 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각 신문의 태도와 논조를 잘 보여주는 사실 분석을 통해 각 신문사들이 환경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신문사설은 신문의 대표적인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문의 대표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실은 대중의 의견 및 의사 형성을 신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사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 관련 사설을 6대 일간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문의 환경 관련 보도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이효성, 「언론과 민주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 10.

2) 에리히 프롬, 이상두 역, 「자유에서의 도피」, (서울: 범우사, 1975 개정 6판 1988), p 144.

1. 연구 범위

본 연구를 위해 신문 사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 도구로 현재 한국언론재단이 보유한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KINDS)³⁾를 이용해 6대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보도된 종합일간지의 모든 보도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6대 종합 일간지 신문 사설 729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은 IMF 사태 이후 경제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논리가 환경논리보다 우선시 된 시기였다.

분석 대상 신문은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KINDS)에 수록된 10대 종합 일간지 중 6개를 선택하였다. 6개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며 많은 언론 중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대기업이 최대 주주였던 문화일보와 경향신문, 진보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중앙일보는 주요 일간지이기는 하나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아 제외되었다⁴⁾.

2. 분석방법 및 주제유목⁵⁾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환경 관련 사설 분석을 위해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병용하였다.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경사설의 연도별 게재수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문사별로 주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환경과 개발에 대

한 선호도가 신문사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 관련 사설을 의미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 환경 주제와 자연 환경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 범주는 아래와 같다.

가. 사회환경 주제

주제와 관련된 사회환경 분야는 환경개발, 환경호르몬, 환경위생, 인구, 에너지, 국제환경, 주거환경, 도시화, 소음공해, 기타 등 10개의 큰 유목으로 설정하였다.

- ① 환경개발 : 환경보존과 개발, ESSD, 환경개발과 환경과피
- ② 환경호르몬 : 다이옥신, 디디티, 핵사클로르벤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③ 환경위생 : 유전자변형식품(GMO), 환경과 관련된 질병, 환경과 식품, 환경보건
- ④ 인구 : 인구문제, 인구집중, 저출산
- ⑤ 에너지 :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고유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
- ⑥ 국제환경 : 기후협약, 국가간 환경 문제, 국제환경기구, 그린라운드
- ⑦ 주거환경 : 쾌적한 주거, 주변 환경, 친환경주택, 녹색도시
- ⑧ 도시화 : 교통체증, 도시화 문제
- ⑨ 소음
- ⑩ 기타 : 녹색소비, 환경윤리

나. 자연환경 주제

자연환경 주제와 관련된 분야는 수질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대기오염, 자연생태계, 폐기물, 기타 등 7개의 유목으로 설정하였다.

3)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뉴스 전문 검색사이트(www.kinds.or.kr)이다.

4)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신문사로 특정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사로써 분석 가치가 있다. 특히 IMF 이후 자본에 의한 기업의 영향력이 큰 시점에서 중앙일보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5) 서병철(2000), 신동호(2002)의 분석유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서병철은 자연환경주제(담수자원, 폐기물, 대기오염, 자연생태계, 유해화학 및 핵문제, 해양오염, 소음 및 기타)와 사회환경주제(녹색소비, 인구와 빈곤퇴치, 도시 및 주거공간과 환경, 녹색교통, 에너지, 환경보건, 정치와 경제 관련법제, 녹색여가와 문화, 시민환경운동, 국제환경문제, 기타)로 분류했으며 신동호는 구분 없이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계, 원자력, 해양, 토양,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 분류하였다.

- ⑪ 수질오염 : 강, 하천, 호수, 수돗물, 댐 건설, 상수원 오염 관련
- ⑫ 해양오염 : 바다쓰레기, 적조, 백화현상, 해양생태계
- ⑬ 방사능오염 : 원전 건설,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 핵문제
- ⑭ 대기오염 : 공장 매연, 미세 먼지, 오존주의보, 자동차 배기가스
- ⑮ 자연생태계 : 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 산림 보존
- ⑯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산업용 폐기물
- ⑰ 기타

Ⅲ. 환경 관련 신문 사설 분석 결과

1. 환경 사설 양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6대 일간지에 게재된 환경 관련 사설의 수는 총 729개였으며, 전체 사설(28,100개) 중 2.59%였다.

〈표 1〉에 따르면 6년 동안 게재된 환경 사설은 2000년 이후부터 전체 사설 대비 환경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평균 사설 게재 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다가 2001년부터 꾸준히 게재수가 감소했다. 특히 2003년은 전체 사설 중 환경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분석 기간 중 가장 낮게 게재된 해로 조사되었다.

〈표 2〉에 따르면 6대 일간지 중 한겨레신문

(3.31%)과 한국일보(3.39%)가 전체 신문 사설 중 환경 사설을 가장 비중 있게 게재하였으며, 조선일보(2.19%)와 동아일보(1.61%)는 환경 사설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게재비율 순은 한국, 한겨레, 문화, 경향, 조선, 동아일보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환경사설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졌다. 동아일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사설이 증가하다 2002년부터 점차 비율이 감소했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사설 비율이 증가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4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경향신문은 환경 사설 비율이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1년도에 소폭 증가한 후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했다. 문화일보는 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 사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04년에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환경 사설 비율이 큰 신문사를 살펴보면, 1999년에 조선, 한국, 문화, 한겨레, 경향, 동아일보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0년에 한국, 문화, 한겨레, 조선, 경향, 동아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도는 한국, 한겨레, 경향, 문화, 조선, 동아일보 순이었고, 2002년에 한국, 한겨레, 문화, 경향, 동아, 조선일보 순이었다. 2003년에는 한겨레, 경향, 한국, 동아, 조선, 문화일보 순이었으며, 2004년에는 한겨레, 한국, 경향, 문화, 동아, 조선일보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 사설의 주제

각 신문사들의 사설은 환경문제를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신문사는 환경 사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황은 어떠한지 사

〈표 1〉 6대 일간지 연도별 환경사설 게재수

사설	연도							계(%)
	99	00	01	02	03	04		
환경사설	122 (3.49)	151 (3.84)	157 (3.53)	125 (2.32)	83 (1.51)	91 (1.69)	729 (2.59)	
전체사설	3,491	3,933	4,448	5,379	5,471	5,378	28,100	

〈표 2〉 6대 일간지 연도별 환경사실 게재수

연도	99	00	01	02	03	04	계(%)
신문사							
조선	21(5.51)	28(4.01)	19(2.75)	12(1.34)	10(1.10)	8(0.89)	98(2.19)
동아	11(1.75)	13(2.12)	16(2.47)	13(1.44)	12(1.30)	9(1.02)	74(1.61)
한겨레	23(3.72)	30(4.45)	34(3.99)	26(2.86)	20(2.21)	28(3.11)	161(3.31)
한국	26(4.27)	34(5.52)	33(4.63)	32(3.52)	15(1.63)	19(2.08)	159(3.39)
경향	17(2.72)	14(2.25)	27(3.59)	21(2.32)	18(1.96)	17(1.87)	114(2.41)
문화	24(3.79)	32(4.48)	28(3.52)	21(2.42)	8(0.88)	10(1.12)	123(2.56)
계(%)	122(3.49)	151(3.84)	157(3.53)	125(2.32)	83(1.51)	91(1.69)	729(2.59)

*() : 전체 사실 중 환경사실 비율.

회환경 분야와 자연환경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사회환경

신문 사실을 사회환경적인 측면 10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사회환경 주제는 전체 환경사실 주제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환경 주제를 더 많이 취급하고 있다.

환경 사실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면 환경 개발 분야가 사회환경 사실 중에서 46.3%를 차지했다. 주로 시화호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 경부고속철도 사업, 사패산 터널 사건 등 굵직한 대책 사업과 맞물려 환경보호와 개발에

〈표 3〉 연도별 사회환경주제 현황

연도	주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		31	41	44	26	38	28	208(46.3)
2		6	9	3	3	0	0	21(4.7)
3		10	9	14	3	2	6	44(9.8)
4		1	0	2	0	1	1	5(1.1)
5		10	6	1	1	2	3	23(5.1)
6		6	11	10	10	1	11	49(10.9)
7		2	8	5	1	1	7	24(5.3)
8		2	1	2	5	2	2	14(3.1)
9		0	1	1	2	2	1	7(1.6)
10		9	20	6	9	4	6	54(12.0)
계		77(17.1)	106(23.6)	88(19.6)	60(13.4)	53(11.8)	65(14.5)	449(=100)

① 환경개발, ② 환경호르몬, ③ 환경위생, ④ 인구, ⑤ 에너지, ⑥ 국제환경, ⑦ 주거환경, ⑧ 도시화, ⑨ 소음, ⑩ 기타.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 다음으로 국제환경(10.9%) 분야와 환경위생(9.8%) 분야가 뒤를 잇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국제환경 분야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환경위생 분야는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사설에서 9.8%를 차지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는 5.1%를 차지했고 주거환경 분야는 5.3%를 차지 하였다. 이 밖에 환경호르몬, 도시화, 소음, 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주요 관심사였던 주제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환경개발과 환경위생, 에너지 순으로 관련 사설이 많았으며, 2000년에는 환경개발, 국제환경, 환경호르몬, 환경위생 순으로 2001년에는 환경개발, 환경위생, 국제환경 순이었고, 2002년에는 환경개발, 국제환경 순으로 게재되었다. 2003년에는 환경개발이 주로 게재되었으며, 2004년에는 환경개발, 국제환경, 주거환경, 환경위생 순으로 주로 게재되었다.

나.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표 4>에 의하면 6년간 자연환경 주제를 게재한 사설의 수는 280개로 전체 729개 중 38.4%를 차지했다. 자연환경 주제 중 가장 많이 게재된 주제는 수질오염으로 42.5%였으며 2001년까지 계

재수가 증가한 후 2002년부터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방사능 오염 관련 사설이 많았으며, 2000년에는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2001년에는 수질오염, 자연생태계,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2002년에는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대기오염, 2003년에는 방사능오염, 수질오염, 자연생태계, 2004년에는 방사능오염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폐기물 순으로 게재수가 많았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로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설이 주로 게재되었으나 2003년부터 방사능오염과 관련된 주제가 주로 게재되었다.

IV. 환경 사설에 관한 논의

1. 선행 연구 고찰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할 영국과 미국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매스미디어의 관점에서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1985년도에 발표한 최광해(1985)의 연구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는 환경보도의 전성시대였다. 1991년 낙동강

<표 4> 연도별 자연환경 주제현황

연도 \ 주제	11	12	13	14	15	16	17	계(%)
99	20	1	9	1	11	1	2	45(16.1)
00	23	0	1	1	12	4	4	45(16.1)
01	42	1	5	7	10	1	3	69(24.6)
02	24	1	0	17	19	3	1	65(23.2)
03	5	0	17	1	4	0	3	30(10.7)
04	5	1	7	3	4	4	2	26(9.3)
계	119(42.5)	4(1.4)	39(13.9)	30(10.7)	60(21.4)	13(4.6)	15(5.4)	280(=100)

① 수질오염, ② 해양오염, ③ 방사능오염, ④ 대기오염, ⑤ 자연생태계, ⑥ 폐기물, ⑦ 기타.

폐놀오염 사건을 시작으로 신문의 환경보도 경쟁은 뜨거웠고 1990년대 중반쯤에 오면서 거의 모든 신문에 환경취재팀과 환경면이 신설되었다. 특히 신문사의 증면 경쟁은 환경 관련 기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증면에 따른 기사의 홍수 속에 환경 관련 기사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환경 관련 신문 보도가 증가하면서 환경문제를 다룬 언론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다룬 언론매체의 연구는 환경보도의 의제 설정 기능, 환경 보도 내용의 분석, 환경 보도의 특징과 문제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연구된 환경 보도에 관한 논문 및 자료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과 매스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사설의 경우, 신문사의 얼굴이자 신문사의 대표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사설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연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관련 신문 사설은 1991년에 안기희(1991)에 처음 연구된 이래 1993년, 1995년, 1996년, 2000년에 연구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초에 발표된 연구가 없었다.

<표 6>은 환경 관련 사설을 연구한 연구물들이다.

2. 환경 관련 사설 비교 분석

지금까지 환경 관련 사설이 연구되기 시작한 1982년부터, 특히 본 연구대상이 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환경사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 사설 비율

신문사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보도를 게재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신문사가 보도하지만 여론의 관심과 사회적 이슈(issue)로 대

<표 5> 환경문제와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연구현황

제목	지은이	출처(년도)
*환경행정과 언론의 태도에 관한 연구	최광해	서울대 행정대학원(85)
환경운동과 언론	김영기	한국언론연구원(91)
환경오염과 언론의 감시 기능	김동민	한국언론학회(91)
*환경 정책 의제 형성에 관한 연구	정윤길	동국대학원 행정학과(92)
*국내 주요 일간지 환경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안종주	서울대 보건대학원(93)
매스미디어 환경보도 추세와 환경보전 역할	정재춘	환경세미나(94)
미디어의 환경담론 분석	정해경	서울대 대학원(94)
환경정책 결정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기식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94)
취재기자가 본 환경보도의 문제점	강찬수	신문과 방송(96)
환경기자의 현주소	한삼희	신문과 방송(96)
*한국신문의 환경 쟁점 논제 설정 기능	한부식	연세대학교 대학원(98)
*신문의 환경보도에 대한 독자의 인식도 조사 연구	이정환	건국대 대학원 환경공학과(98)
*물 환경정책 관련 신문기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준규	연세대학교 대학원(2000)
*신문활용교육이 고등학생들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지식·태도·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재선	연세대 대학원(2001)
*1990년대 우리나라 신문의 환경보도 추세 분석	신동호	서울대 환경대학원(2002)

(*는 학위논문)

〈표 6〉 환경관련 사설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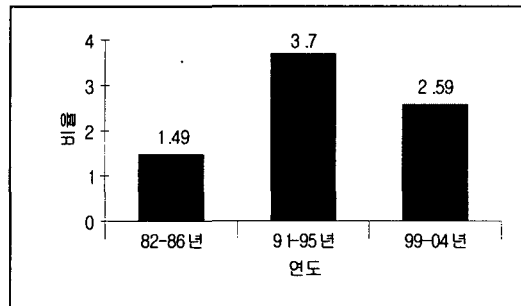
제목	지은이	출처
환경문제와 신문사설	안기희	신문과 방송 214호, 한국언론재단, 1991
*환경에 대한 신문보도의 태도와 분석에 대하여	전재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신문의 환경문제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이상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1995
*환경관련 신문사설과 신문의 역할 연구	이강수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1996
*환경문제 관련 신문사설의 보도경향 연구	서병철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0

(*는 학위논문)

두되는 분야의 기사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특히 신문 사설의 경우는 신문사의 대표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론의 관심과 사회적 이슈를 가장 잘 대변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전체 사설 중 환경 관련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은 연대별 환경 사설의 비율로 1980년대 환경사설이 가장 적었으며, 1990년대 가장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환경 사설의 양이 198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급속한 경제 개발과 도시화로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에는 환경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비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것과 200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한일월드컵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이후 환경 문제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비율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주제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루는 비율이 바뀔 만큼 가벼운 주제인가? 박이문(2002)은 그의 저서에서 ‘환경문제는 결코 환상도 과장도 아니다’라고 했으며, 환경문제 및 문명과 인류의 위기는 객관적 사실로 우리들 자신의 생물학적 존속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



〈그림 1〉 연대별 환경사설 비율⁶⁾

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⁷⁾.

또한 홍성태(2004)는 『생태사회를 위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생태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며 이러한 생태 위기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다고 역설했다⁸⁾. 환경은 인류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다. P. Shepard,(1958)는 인류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⁹⁾.

‘치명적인 위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서 있는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결코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설은 왜 후퇴했을까? 그것은 연대별로 사회적 이슈, 경제적 현황, 환경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 신문사가 가지

6) 전체 사설 중 환경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82~86년 자료는 안기희(1991), 91~95년 자료는 이강수(1996)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99~2004년 자료는 본 연구자의 자료이다.

7) 박이문, 『환경철학』, (서울: 미다스북스, 2002), p. 226

8) 홍성태, 『생태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화과학사, 2004), p. 13

9) Shepard, Paul(1958). The Place of Nature in Man's World, *Atlantic Naturalist*, Vol. 13, pp. 85-9.

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문사들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사안들을 주로 신문에 게재한다. 환경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추적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취재원들의 지속적인 추적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IMF 이후 경제발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었던 만큼 환경논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IMF 이후 거대 자본의 신문사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져 나갔고 권언유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환경의 위기, 환경의 세기라는 추켜세움 속에서도 환경 사실이 후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환경 사실 주제

1982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사실의 주제는 <표 5>와 같이 사회의 관심사와 더불어 변화했다. 1980년대는 생태계 오염이 환경 사실의 주제였다. 이는 급속한 경제개발 부작용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태계 오염과 같은 주제가 환경 사실에 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실이 많았다. 이는 언론에서 환경문제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루어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했던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2000년대는 환경개발과 관련된 주제가 사실에 게재되었다. 이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 정부, 시민 등 여러 단체들의 환경보전과 환경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이는 수질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의 지표로 인식될 만큼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표 7> 연도별 주제현황¹¹⁾

연대 순위		82~86년	91~95년	99~04년
		1순위	생태계오염	환경정책행정
주제				
2순위		수질오염	방사능공해병	수질오염

생각된다.

그러나 문종대(1996)는 환경파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보도의 집중은 환경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문제로 주제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안보다는 단기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쉽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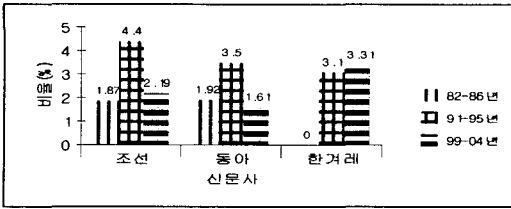
지금까지 각 신문사의 사실에 나타난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각 신문사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신문사마다 환경에 대한 시각이 인간중심주의든 생태중심주의든 간에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사실적·과학기술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 특히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 신문사의 사실이 환경문제를 다룰 때 위와 같은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신문사별 환경 사실 비교

22년간 환경 사실을 게재한 신문사들의 추이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¹⁴⁾. <그림 2>는 3개 신문사의 연도별 환경사실 비율 현황이다.

조선일보는 1990년대에 환경 사실을 가장 많이 게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환경 사실 비율이 1980년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1990년

10) 정재춘, 환경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과방송 1993. 12, p. 30.
 11) 연도별 주요 주제현황을 나타낸 표로 82~86년 자료는 안기희(1991), 91~95년 자료는 이강수(1996)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99~2004년 자료는 본 연구자의 자료이다.
 12) 문종대, "최근 환경관련 보도검증", 신문과 방송, 1996, 9, p. 12.
 13) 한국환경사회학회,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서울: 2004, 창비), p. 236.
 14) 여러 신문사가 있으나, 연구자마다 선정한 신문사가 달라 그 중에서 가장 공통분모가 많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림 2〉 신문사별 환경사설 비율 현황(%)¹⁵⁾

대 폐놀사건 등 환경보도의 홍수와 더불어 조선일보도 적극적으로 전체 사설 중 4%가 넘는 환경 사설을 게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사설을 주로 게재하면서 환경 사설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분석 신문사 중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적게 환경 사설을 게재하는 신문사로 조사되었다. 반면 1988년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다른 신문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환경 사설 비율이 감소한 반면 오히려 환경 사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도별 사설의 비율을 신문사별로 살펴본 결과 정치적 이념과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상호 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두식(1995)은 높은 정치적 불만과 체제개혁적인 성향은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예상했다¹⁶⁾. 또한 한국환경사회학회(2004)에서도 개혁 성향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¹⁷⁾.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사와 한겨레신문으로 대표되는 진보성향의 환경 사설 비율을 통해 알 수 있었다¹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환경 사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신문은 점점 환경 사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환경문제가 사회구조적 과

행성으로 인해 발생·심화 되는 것이며 그 해결은 이러한 과행성을 제거하는 체제의 개혁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운동이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간에 체제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고 Scott(1990)는 설명하고 있다²⁰⁾.

특히 신문사마다 환경에 관한 태도가 달랐음을 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간중심주의적 환경철학을 표방한 반면,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는 소극적 의미의 인간중심적인 시각의 사설을 주로 게재하였다²⁰⁾. 이렇게 같은 사안이라도 신문사마다 환경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는 1960년대 제시된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연구자들은 어떤 문제에 관한 집단토의에 참가한 후에 구성원들은 토의 전보다 더 모험적인 의사결정들을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험성 이행(risky shift)’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견은 일부 이것이 집단들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이고 지지부진하다는 보통의 생각들과 모순되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러한 집단토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당초의 견해들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따라서 보다 더 극단적인 의견을 일으킨다는 개념이다.’²¹⁾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태도가 접근 방법이 다른 이유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집단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중대 교수가 ‘신문과 방송’ 잡지에 투고한 특집보도는 의의가 있다.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며 산업생산

15) 신문사별 환경사설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82~86년 자료는 안기희(1991), 91~95년 자료는 이강수(1996)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99~2004년 자료는 본 연구자의 자료이다.

16) 김두식,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조사 연구」, 『한국사회학』 29(봄호), 1995, pp. 33-67.

17) 한국환경사회학회,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서울: 창비, 2004), p. 257.

18) 최한수, “총선에서의 보수 개혁신문 사설비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pp. 113-114.

19) Scott, Alan (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in Hyman.

20)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1999년 1월 13일 자 사설을 참고.

21)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 2001), p. 124.

과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서 자연환경은 누구나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다. 개인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자연환경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사적 사용은 공유재산인 환경의 황폐화를 가속화시켜 자연생태학적인 스레시홀드 지점(threshold point)²²⁾을 위협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²³⁾

즉, 환경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공유재산이다. 개발과 환경보전, 또는 ESSD²⁴⁾의 명목하에 환경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요시하는 일부 신문사의 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은 녹색혁명을 운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녹색혁명 또한 기술이 자연에 대한 우월한 대체물이므로 자연의 한계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녹색혁명은 생태적 파괴를 통해서 자연에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며 환경을 무시한 개발 논리를 펴는 신문사의 태도는 위험하다. 이러한 신문사의 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최윤희(1991)는 미국 럿거스대학교 그린버그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다²⁶⁾. 그린버그 교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일반 사고에 비해 피해(risk)가 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가 보도에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정치와 언론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유착 관계이다. 정권은 언론 회유책으로 언론인들을 정치인이나 관료로 등용한다. 언론인들의 국회의원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11대 국회에서 27명, 13대 국회 26명, 14대 국회에서 40명이나 이른다. 이러한 언론인들의 정·관계 진출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인을 발탁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무마, 협조와 압박 등의 통로가 될 수 있다²⁷⁾.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많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신문사들의 환경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정언유착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문사들이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미디어는 주로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거대 자본의 힘을 확장시켰다. 1960년 대 이후 언론사 총 수입의 70%가 광고 수입이다. 기업은 광고주의 자격으로 언론에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기업체가 광고주로서 언론사에 대해 가지는 힘은 한국 미디어의 보수주의 뒤에 놓여진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심지어 한국에서 진보적인 세력을 대변한다는 「한겨레신문」조차도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²⁸⁾.

셋째, 언론사들의 소위 말하는 ‘냄비 저널리즘’ 때문이다. 분단 체제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담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치열

22) 출발점. 발단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한계’라고도 한다. 콤프레서(compressor), 리미터(limiter), 노이즈 게이트(noisegate) 등 기기의 입력 신호가 어떤 레벨에 달해서 목적을 수행하는 동작을 개시하는 수치를 스레시홀드 레벨(threshold level)이라고 하며, 그 개시점을 스레시홀드 포인트(threshold point)라고 한다. 디지털의 경우에는 논리값을 나타내는 파형 중 0과 1의 분계점을 말한다. 즉 어떤 값이 다른 값과 틀린 것을 판별하는 한계값 또는 임계값.

23) 문종대, “최근 환경관련 보도 검증”, 신문과 방송, 1996년 9월, p. 11.

24)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개발을 뜻한다. 1987년 유엔총회 때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구환경질서의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 성장과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진국은 1회용품 사용 등 환경 훼손 소비 행태를, 개도국은 생태계 파괴적인 자원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다.

25) Vandana Shiva,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한재각 외 옮김, (서울: 당대, 2000), p. 199.

26) 최윤희, “특집: 환경보도, 외국의 사례”, 한국언론재단, 1991년 5월, p. 8.

27) 제임스커런, 박명진 편저, 세계화와 미디어 연구, 양은경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p. 220.

28) 위의 책 p. 223.

한 상업적 경쟁은 쉽게 달아오르고 곧바로 쉽게 식어버리는 경향을 지칭하는 '냄비 저널리즘'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²⁹⁾. 환경 관련 사설이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되지 못하고 반짝 이슈(issue)로 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냄비 저널리즘'에서 기인된다.

이러한 신문사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언론매체는 기자가 되려면 어려운 입사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온라인 매체는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으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 시민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만여 명에 달한다³⁰⁾. 물론 온라인 매체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MF 이후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경제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선진국들이 환경위기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때에 우리는 환경을 등한시하는 우(愚)를 범했다. 개발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IMF 상황을 타계하자는 논리 속에 환경은 개발에 의해 묻혀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신문사들의 환경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절실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50년 전만 해도 환경문제는 의식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문명의 존속과 인간의 생

물학적인 생존 자체까지 위협할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신문사도 1980년대 들어 신문사의 대표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사설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사설을 꾸준히 게재하였다.

1982년 환경 관련 사설이 연구된 이래 지금까지 환경 사설이 연구된 것은 2000년도까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문사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지만 연구 방법의 한계와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대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환경 사설 729개의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신문사들은 환경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신문사마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은 제각각이었지만,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분석 유목으로 분류하였던 사회환경과 자연환경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환경문제를 과학적, 기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시각을 더욱 견지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이념과 환경에 대한 관심사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³¹⁾.

즉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신문사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컸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신문사인 한겨레신문은 1988년도에 창간된 이래 꾸준히 환경 사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성향의 대표 신문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환경 사설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환경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9) 위의 책 p.227.

30) 최서영, 한국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p. 484-489.

31) 신중간계층은 정치에 관심이 적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크다. 따라서 위의 주장이 일반화 될 수는 없으나 신문사의 경우 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6대 일간지 사설 중 환경과 개발을 게재한 사설 비율은 전체 환경 사설의 28.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신문사의 사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사안의 문제라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생태중심주의 철학과 인간중심주의 철학을 표방하는 각 신문사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의 사설이 해당 신문사의 대표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사설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신문사들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되 생태론적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급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환경을 고려하는 신문사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신문사의 보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론과 정·관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거대 자본에 의한 신문사들의 잠식, 냄비 저널리즘으로 인해 환경보도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신문사들의 구조적인 한계는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저하케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생태학적 시각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위해 신문의 사설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사는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없이 환경 사설을 인용할 시 균형적인 관점과 생태학적인 관점을 학생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강준만 (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김두식 (1995).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조사 연구”, **한국사회학** 29 (봄호).
 문중대 (1996). “최근 환경관련 보도 검증”, 한국

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9월호.
 박이문 (2002). **환경철학**, 서울: 미다스북스.
 서병철 (2000). 환경문제에 관련한 신문사설의 보도경향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동호 (2002). 1990년대 우리나라 신문의 환경보도 추세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기희 (1991). “환경문제와 신문사설”, **신문과 방송** 214호.
 이강수 (1996). 환경관련 신문사설과 신문의 역할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성 (2002). **언론과 민주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재춘 (1993). “환경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12월호.
 차배근 (2000).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서울: 한울.
 최서영 (2002). **한국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윤희 (1991). “특집 : 환경보도, 외국의 사례”, **한국언론재단** 5월호.
 최한수 (1997). 총선에서의 보수 개혁신문 사설비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서울: 창비.
 한삼희 (1996). “환경기사·환경기자의 현주소”, **신문과 방송** 9월호.
 홍성태 (2004). **생태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화과 학사.
 Erich Fromm (1976). *Escape from freedom* 이상두 역(1993). **자유에서의 도피**, 서울: 범우사.
 James Curran (1999). *De-westernizing media studies* ‘박명진 편저(2000). **세계화와 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Lester W. Milbrath (1989).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이태건, 노병철, 박지운 역 (2001). **지속가능한 사회**, 서울: 인간사랑.
 Rachel Carson (1962). *Silent spring*, ‘김은령 역 (2004). **침묵의 봄**, 서울: 에코리브르’.
 Vandana Shiva (1997). *Biopiracy the plunder of nature and knowledge*, ‘한재각 역(2000)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서울: 당대'.

Scott, Alan (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in Hyman.

Shepard, Paul (1958). The Place of Nature in Man's World, *Atlantic Naturalist*, Vol. 13, pp. 85-9.